

지역 매 아리

정읍시, 폭염대응 상황실 운영  
가축 피해 예방에 '두 팔 걷어'

정읍시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 예방을 위해 축산분야 폭염 대응 상황실을 운영하며 선제 대응에 나섰다.

올해도 무더위가 일찍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피해 예상지역을 사전 점검하고 한층 강화된 대책을 마련해 축산농가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시는 총사업비 2억5000만원을 투입해 제방기와 환풍기, 안개분무기 등을 지원하고 폭염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폭염으로 인한 가축피해 방지에 힘쓰고 있다.

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 상황은 닭 87건, 오리 13건, 돼지 47건, 메추리 12건을 포함 총 4인1762두·수(추정보합금: 3억2000만원)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시는 축산농가 피해 예방을 위해 폭염 상황을 전파하고 폭염으로 인한 폐사 가축의 처리 방안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축사 통풍과 물 뿌리기를 통한 복사열 방지, 전기장작 과열로 인한 화재 예방 등 축사시설물과 가축 사안관리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여름철 폭염이 지속되면 가축은 식욕과 성장이 저하되고 질병이 발생하기 쉬우며 삼할 경우 폐사로 이어진다"며 "이러한 피해까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빠른 시일 내에 보험에 가입하여 폭염 피해 등 재해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 상황은 닭 87건, 오리 13건, 돼지 47건, 메추리 12건을 포함 총 4인1762두·수(추정보합금: 3억2000만원)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시는 축산농가 피해 예방을 위해 폭염 상황을 전파하고 폭염으로 인한 폐사 가축의 처리 방안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축사 통풍과 물 뿌리기를 통한 복사열 방지, 전기장작 과열로 인한 화재 예방 등 축사시설물과 가축 사안관리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여름철 폭염이 지속되면 가축은 식욕과 성장이 저하되고 질병이 발생하기 쉬우며 삼할 경우 폐사로 이어진다"며 "이러한 피해까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빠른 시일 내에 보험에 가입하여 폭염 피해 등 재해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 상황은 닭 87건, 오리 13건, 돼지 47건, 메추리 12건을 포함 총 4인1762두·수(추정보합금: 3억2000만원)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시는 축산농가 피해 예방을 위해 폭염 상황을 전파하고 폭염으로 인한 폐사 가축의 처리 방안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축사 통풍과 물 뿌리기를 통한 복사열 방지, 전기장작 과열로 인한 화재 예방 등 축사시설물과 가축 사안관리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여름철 폭염이 지속되면 가축은 식욕과 성장이 저하되고 질병이 발생하기 쉬우며 삼할 경우 폐사로 이어진다"며 "이러한 피해까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빠른 시일 내에 보험에 가입하여 폭염 피해 등 재해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 상황은 닭 87건, 오리 13건, 돼지 47건, 메추리 12건을 포함 총 4인1762두·수(추정보합금: 3억2000만원)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시는 축산농가 피해 예방을 위해 폭염 상황을 전파하고 폭염으로 인한 폐사 가축의 처리 방안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축사 통풍과 물 뿌리기를 통한 복사열 방지, 전기장작 과열로 인한 화재 예방 등 축사시설물과 가축 사안관리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여름철 폭염이 지속되면 가축은 식욕과 성장이 저하되고 질병이 발생하기 쉬우며 삼할 경우 폐사로 이어진다"며 "이러한 피해까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빠른 시일 내에 보험에 가입하여 폭염 피해 등 재해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 상황은 닭 87건, 오리 13건, 돼지 47건, 메추리 12건을 포함 총 4인1762두·수(추정보합금: 3억2000만원)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시는 축산농가 피해 예방을 위해 폭염 상황을 전파하고 폭염으로 인한 폐사 가축의 처리 방안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축사 통풍과 물 뿌리기를 통한 복사열 방지, 전기장작 과열로 인한 화재 예방 등 축사시설물과 가축 사안관리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여름철 폭염이 지속되면 가축은 식욕과 성장이 저하되고 질병이 발생하기 쉬우며 삼할 경우 폐사로 이어진다"며 "이러한 피해까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빠른 시일 내에 보험에 가입하여 폭염 피해 등 재해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 상황은 닭 87건, 오리 13건, 돼지 47건, 메추리 12건을 포함 총 4인1762두·수(추정보합금: 3억2000만원)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시는 축산농가 피해 예방을 위해 폭염 상황을 전파하고 폭염으로 인한 폐사 가축의 처리 방안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축사 통풍과 물 뿌리기를 통한 복사열 방지, 전기장작 과열로 인한 화재 예방 등 축사시설물과 가축 사안관리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여름철 폭염이 지속되면 가축은 식욕과 성장이 저하되고 질병이 발생하기 쉬우며 삼할 경우 폐사로 이어진다"며 "이러한 피해까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빠른 시일 내에 보험에 가입하여 폭염 피해 등 재해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 상황은 닭 87건, 오리 13건, 돼지 47건, 메추리 12건을 포함 총 4인1762두·수(추정보합금: 3억2000만원)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시는 축산농가 피해 예방을 위해 폭염 상황을 전파하고 폭염으로 인한 폐사 가축의 처리 방안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축사 통풍과 물 뿌리기를 통한 복사열 방지, 전기장작 과열로 인한 화재 예방 등 축사시설물과 가축 사안관리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여름철 폭염이 지속되면 가축은 식욕과 성장이 저하되고 질병이 발생하기 쉬우며 삼할 경우 폐사로 이어진다"며 "이러한 피해까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빠른 시일 내에 보험에 가입하여 폭염 피해 등 재해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 상황은 닭 87건, 오리 13건, 돼지 47건, 메추리 12건을 포함 총 4인1762두·수(추정보합금: 3억2000만원)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시는 축산농가 피해 예방을 위해 폭염 상황을 전파하고 폭염으로 인한 폐사 가축의 처리 방안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축사 통풍과 물 뿌리기를 통한 복사열 방지, 전기장작 과열로 인한 화재 예방 등 축사시설물과 가축 사안관리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여름철 폭염이 지속되면 가축은 식욕과 성장이 저하되고 질병이 발생하기 쉬우며 삼할 경우 폐사로 이어진다"며 "이러한 피해까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빠른 시일 내에 보험에 가입하여 폭염 피해 등 재해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 상황은 닭 87건, 오리 13건, 돼지 47건, 메추리 12건을 포함 총 4인1762두·수(추정보합금: 3억2000만원)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시는 축산농가 피해 예방을 위해 폭염 상황을 전파하고 폭염으로 인한 폐사 가축의 처리 방안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축사 통풍과 물 뿌리기를 통한 복사열 방지, 전기장작 과열로 인한 화재 예방 등 축사시설물과 가축 사안관리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여름철 폭염이 지속되면 가축은 식욕과 성장이 저하되고 질병이 발생하기 쉬우며 삼할 경우 폐사로 이어진다"며 "이러한 피해까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빠른 시일 내에 보험에 가입하여 폭염 피해 등 재해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 상황은 닭 87건, 오리 13건, 돼지 47건, 메추리 12건을 포함 총 4인1762두·수(추정보합금: 3억2000만원)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시는 축산농가 피해 예방을 위해 폭염 상황을 전파하고 폭염으로 인한 폐사 가축의 처리 방안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축사 통풍과 물 뿌리기를 통한 복사열 방지, 전기장작 과열로 인한 화재 예방 등 축사시설물과 가축 사안관리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여름철 폭염이 지속되면 가축은 식욕과 성장이 저하되고 질병이 발생하기 쉬우며 삼할 경우 폐사로 이어진다"며 "이러한 피해까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빠른 시일 내에 보험에 가입하여 폭염 피해 등 재해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 상황은 닭 87건, 오리 13건, 돼지 47건, 메추리 12건을 포함 총 4인1762두·수(추정보합금: 3억2000만원)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시는 축산농가 피해 예방을 위해 폭염 상황을 전파하고 폭염으로 인한 폐사 가축의 처리 방안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축사 통풍과 물 뿌리기를 통한 복사열 방지, 전기장작 과열로 인한 화재 예방 등 축사시설물과 가축 사안관리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여름철 폭염이 지속되면 가축은 식욕과 성장이 저하되고 질병이 발생하기 쉬우며 삼할 경우 폐사로 이어진다"며 "이러한 피해까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빠른 시일 내에 보험에 가입하여 폭염 피해 등 재해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 상황은 닭 87건, 오리 13건, 돼지 47건, 메추리 12건을 포함 총 4인1762두·수(추정보합금: 3억2000만원)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시는 축산농가 피해 예방을 위해 폭염 상황을 전파하고 폭염으로 인한 폐사 가축의 처리 방안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축사 통풍과 물 뿌리기를 통한 복사열 방지, 전기장작 과열로 인한 화재 예방 등 축사시설물과 가축 사안관리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여름철 폭염이 지속되면 가축은 식욕과 성장이 저하되고 질병이 발생하기 쉬우며 삼할 경우 폐사로 이어진다"며 "이러한 피해까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빠른 시일 내에 보험에 가입하여 폭염 피해 등 재해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 상황은 닭 87건, 오리 13건, 돼지 47건, 메추리 12건을 포함 총 4인1762두·수(추정보합금: 3억2000만원)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시는 축산농가 피해 예방을 위해 폭염 상황을 전파하고 폭염으로 인한 폐사 가축의 처리 방안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축사 통풍과 물 뿌리기를 통한 복사열 방지, 전기장작 과열로 인한 화재 예방 등 축사시설물과 가축 사안관리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여름철 폭염이 지속되면 가축은 식욕과 성장이 저하되고 질병이 발생하기 쉬우며 삼할 경우 폐사로 이어진다"며 "이러한 피해까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빠른 시일 내에 보험에 가입하여 폭염 피해 등 재해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 숭고한 호국영령의 얼 기리다

## 정읍시, 충무공원 현충탑서 현충일 추념식 가져

정읍시가 6일 제1회 현충일을 맞아 오전 9시 50부터 충무공원 현충탑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얼을 기리고 추모하는 현충일 추념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유진섭 시장을 비롯해 최낙삼 시의회 의장, 정읍경찰서장, 정읍교육장, 백정기대대장, 10개 보훈 단체장 등 각급 기관단체장, 도·시의원, 국가유공자, 유족, 군인, 학생, 시민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나라를 위해 산화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숭고한 희생정신과 나라사랑의 뜻을 기렸다.

이 자리에는 앞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어린 세대들인 중학생과 전북과학교 학생 대표 등이 헌화와 분향에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추념식은 국민의례에 이어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과 808부대 조총수의 조포 발사, 헌화·분향, 국가유공자 표창, 추념사, 헌시 낭송, 현충일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특히 이진과 달리 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고 예우하기 위해 백정기 대대장의 협조를 받아 조총을 발사했다.

아울러 선열들의 호국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이바지한 국가유공자 명예에 정읍시장 표창을, 경찰유가족 2명에게는 경찰서장 표창을 수여했다.

또 시청 옆 충무공원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한 보조 기념식장을 마련, 거동이 불편한 참배객들이 추념할 수 있도록 추념식장 앞쪽에 장애인 화장실과 전복과학교 학생 대표 등이 헌화와 분향에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이 외에도 한국 문인협회 정읍지부 최혜숙 사무국장은 도종환 시인의 유언이 오면 을 추모 헌시로 낭송해 참석자들의 눈시울을 적셨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한국음악협회 정읍시지부(지부장 김영신)의 진지한 추모 음악과 정읍시합창단(단장 송은유)의 장엄하고 숙연한 현충일 노래는 유진섭 시장을 더욱 숙연하게 했다.

유진섭 시장은 추념사를 통해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희생한 전몰·호국영령들께 시민과 함께 삼가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한다"며 명복을 빌었다.

이어 사랑하는 가족을 조국의 품에 바치고 오랜 세월 동안 슬픔과 고통 속에서 함께 살아온 보훈 가족에게도 깊은 위로와 격려를 전했다. 더불어 앞으로 많은 실천적 보훈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 "선열들의 값진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 고창군, 충혼탑 광장서 추념식 개최

고창군이 6일 고창읍 덕산리 충혼탑 광장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기 위한 제74회 현충일 추념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고창군수, 조규철 군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기관사회단체장, 보훈단체, 국가유공자와 유족, 군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거행됐다.

**정읍=김대환기자**

추념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울리는 사이렌에 맞춰 묵념, 헌화와 분향, 추념사, 국가유공자 증서 전수식, 헌시낭송에 이어 현충일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추념식 후에는 고창고등학교내 자유평화진리탑과 6·25참전지령비 참배가 이어졌다. 고창고 '지구 평화진리의 탑'은 1951년 8월25일 선운산지구 공비토발작전에 참여하다 산화한 고창중 출신 학도유공군 6명(정택진, 민병욱, 이은교, 김병승, 유익중, 박

**정읍=김대환기자**

금석)을 추모하기 위해 고창중·고등학교 동창회에서 건립했다.

'6·25참전지령비'는 6·25참전유공자회 고창군지회가 2005년 9월 고창 출신 6·25참전유공자 300여명의 공훈과 업적을 기리고 후세에 널리 전하기 위해 건립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고창군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모든 분들의 값진 희생을 잊지 않고, 진정한 평화의 결실을 맺기 위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을 존경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 모두의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유진섭 정읍시장, 농촌 일손돕기 동참... 배 과수 농가 찾아 봉지 씌우기 도와

정읍시가 농촌 인력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을 돕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지난 5일 유진섭 시장을 비롯해 시청 농축산과와 정읍면 직원 30여 명은 우산리에 있는 배 과수원에서 배 봉지 씌우기를 거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과수 농가주는 "과수의 경우 수확이 늦어지거나 봉지 씌우기 등 대부분의 작업이 수작업으로 이뤄진다"며 "일손이 필요한 시기에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유진섭 시장은 "농번기에 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농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기관단체에서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지난 5일 유진섭 시장을 비롯해 시청 농축산과와 정읍면 직원 30여 명이 우산리에 있는 배 과수원을 찾아 배 봉지 씌우기를 거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또 시와 읍면동에 '농촌 일손돕기 지원 창구'를 개설, 농촌 일손돕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항일 애국투사 구파 백정기 의사 순국 제85주기 추모제가 지난 5일 오전 10시부터 영원면에 위치한 백정기 의사 기념관에서 열렸다.

## 평화의 결실, 애국 정신 이어가

### 정읍시, 구파 백정기 의사 기념관에서 추모 행사 열어

항일 애국투사 구파 백정기 의사 순국 제85주기 추모제가 지난 5일 오전 10시부터 영원면에 위치한 백정기 의사 기념관에서 열렸다.

구파백정기 의사 기념사업회(회장 유성열)가 주관한 추모식에는 유진섭 시장을 비롯해 유성열 민주평화당 국회의원과 최낙삼 시의회 의장, 정읍경찰서장, 보훈지청장, 유족, 학생,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조국의 독립과 자유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백정기 의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고 계승 발전시킬 것을 다짐했다.

추념식은 총 3부로 1부 기념식, 2부 추모문화공연과 특강, 3부 전국 추모글짓기 대회 공모전과 지역 내 초·중·고생 글짓기·사생 대회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

**정읍=김대환기자**

립과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원광대학교 김주용 교수가 '진북인의 국의 독립운동'이라는 주제로 백정기 의사의 독립운동사에 대해 특강을 했다.

강의에 참석한 정읍여자중학교(교장 임덕만) 학생은 "우리나라 독립운동 역사와 백정기 의사의 독립운동사를 배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유진섭 시장은 추념사를 통해 "조국의 독립과 자유평화를 위해 희생하신 백정기 의사를 비롯한 수많은 애국지사들의 희생정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평화로운 삶이 가능하다"며 "구파 백정기 의사의 애국애족 정신을 받들고 숭고한 독립정신과 애국충정의 정신을 바탕으로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병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병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병주 GIFT SET**

GIFT SET 1세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세 | 750ml 1ea/12%

GIFT SET 4세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세 | 375ml 5ea/13%

GIFT SET 6세 | 500ml 향병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부안강산 병주**  
Premium Ohdi Wine

TEL : 063-584-9960  
www.gangsanwine.com